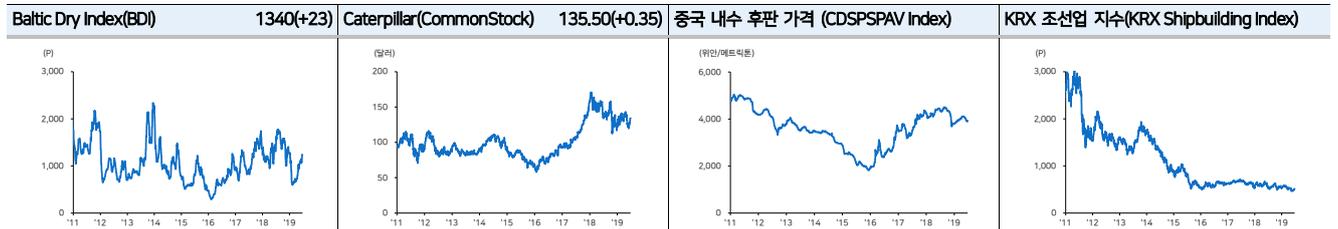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자본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528.2	16.2	120,500	0.8	9.0	3.0	-6.2	84.0	40.3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244.3	20.8	322,000	-0.3	5.1	-2.7	-6.9	4.3	3.6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373.6	5.9	18,350	-1.1	7.3	-26.6	-17.3	1.7	1.5	0.2	0.1	9.3	9.7
현대건설기계	819.6	12.0	41,600	1.5	7.2	-11.5	-2.6	2.6	2.0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5,147.1	20.1	8,170	0.2	7.2	-2.9	10.3	51.5	25.6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500.3	12.5	32,650	-1.1	15.0	16.6	-4.4	11.4	11.4	1.0	0.8	9.0	6.9
현대미포조선	2,021.1	14.0	50,600	-0.8	4.5	-12.0	-15.7	10.9	7.9	0.4	0.4	3.6	4.8
한진중공업	522.1	20.4	6,270	-1.4	-12.3	5.4	-24.2	126.1	31.5	0.9	0.9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466.0	21.3	90,800	-1.7	15.5	12.2	-15.1	16.0	15.6	2.2	2.0	14.6	13.3
두산밥캣	3,689.2	25.8	36,800	-0.5	12.7	19.3	16.8	13.5	12.7	1.0	1.0	7.4	7.6
현대로템	1,810.5	3.8	21,300	-1.8	9.8	-3.4	-23.5	27.5	18.7	1.2	1.2	4.5	6.3
하이룩코리아	234.1	46.7	17,200	0.6	4.2	-7.0	4.6	7.8	7.1	0.7	0.6	8.8	9.0
성광밴드	308.9	18.7	10,800	0.0	1.9	-2.7	-5.3	954.7	38.7	0.7	0.7	0.1	1.8
태광	275.6	11.7	10,400	-0.5	5.2	-7.1	-11.1	62.1	30.3	0.6	0.6	1.0	2.1
두산중공업	1,334.2	12.6	6,600	1.5	7.8	-3.1	-21.4	-19.8	23.0	0.3	0.4	-0.1	4.5
두산인프라코어	1,384.3	17.2	6,650	2.6	4.6	-6.1	-12.4	4.6	5.0	0.7	0.6	17.7	13.2
HSD엔진	124.7	3.4	3,785	-0.8	0.5	-19.7	-28.3	-9.9	-7.3	0.5	0.7	-4.7	-8.9
한국항공우주산업	3,504.2	17.3	35,950	-0.1	10.4	0.7	12.7	52.4	23.5	3.2	3.0	6.1	12.8
한화테크윈	1,662.8	14.9	32,250	1.3	3.9	-5.6	-0.8	133.6	24.4	0.7	0.7	0.6	2.9
LIG넥스원	707.3	7.1	32,150	0.2	-7.5	-20.1	-13.0	74.0	N/A	1.4	N/A	2.4	2.4
태웅	209.1	4.4	10,450	2.0	11.9	5.6	-0.5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45.6	6.2	9,100	-1.7	-0.2	5.9	17.9	-19.2	14.1	3.3	2.7	-16.2	15.8
한국카본	393.4	15.3	8,950	-0.3	15.8	8.7	27.1	139.4	29.4	1.3	1.3	0.9	4.3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Bahri places debut VLCC order at giant new IMI yard

사우디 탱커선사 Bahri는 신조선 발주를 전제로, 현대중공업과 국영조선사 IMI(International Maritime Industries) 간 VLCC 공동건조에 대한 MOU를 체결함. IMI는 Aramco, Bahri, Lamprell, 현대중공업의 합작 회사임. VLCC 발주는 7월 말 전에 시작, 이후 IMI는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해 건조기술을 전수받을 계획임. (TradeWinds)

일본 조선업계 수주절벽 심화. 선주 발주의욕 둔화로 발주정체 장기화

일본선박수출조합에 따르면 2019년 5월 말 기준 일본 조선업계 수주잔고는 2,385만톤(482척)으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일본 메이저 선사도 발주를 중단한 상황으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관망세가 주요 원인임. 현재 수주잔고는 2021년 인도에 집중되어있고, 2022년 인도 물량은 거의 없는 상황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SK해운, 대우조선 건조 초대형 유조선 인수...거래사상 최대

SK해운은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VLCC를 9,800만달러에 인수함. 최근 신조선가 9,300만달러 대비 500만달러 높은 수준으로, 선박 거래 사상 최고가격에 인수되었다고 알려짐. 기존 발주처는 Frontline으로, 발주 당시 스크러버를 포함해 계약가는 9,300만달러 대임. SK해운은 VLCC를 Trafigura와 원유운송 계약에 투입할 계획임. (EBN)

Oman Shipping to add 22 ships by 2023

Oman Shipping은 2023년까지 선대 규모를 71척으로 확장하기 위해, 21척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 최근 발주한 대우조선해양의 VLCC를 포함해 컨테이너선도 15척을 확보했음. 추가로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부문에서 선대를 늘릴 계획. 벌크선 부문은 8척 추가발주가 예상되며, 컨테이너선도 현재 290만톤에서 23년까지 1,360만톤으로 늘릴 예정. (TradeWinds)

"LNG선만 있다", 오랜만에 돌아온 컨테이너선

대만 선사 Evergreen은 7월부터 2.3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9+2척 발주를 위한 입찰제 안서를 발송할 예정임. 입찰규모는 약 17억달러로 예상되며, 모두 LNG추진선으로 발주됨. 이르면 올해 말 결과가 발표될 전망임.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추진선 건조기술에서 국내 조선사가 앞서고 있어, 수주가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머니투데이)

Total kicks off enquiries for LNG carrier tonnage

오일메이저 Total은 LNG 포트폴리오 확대에 맞춰 LNG선 용선을 준비 중으로 알려짐. 2~3년 간 LNG선 5척 용선 또는 선박 크기와 기간에 따라 2+4척 용선하는 방식 등 의견이 분분함. Total은 Gas 포트폴리오를 계속 늘려왔으나, 여전히 목심이 있는 상황임. Mozambique LNG 매입으로 Upstream 부문에서 포트폴리오 확대도 그 일환임. (TradeWinds)

내년 해운 시장 전망 "stable"

Moody's에 따르면 2020년 해운시장은 'stable'할 전망이다. 운임 수입은 높아지나, 무역전쟁과 새로운 규제가 리스크로 작용해 운임 수입증가와 상쇄될 전망. 그럼에도 2020년 EBITDA 증가율이 16~18%에 달하고, 수급증가율이 균형을 이뤄 stable로 예상. 또 탱커는 수요개선과 신조 발주량 감소로 negative에서 stable로 바뀔. (선박뉴스)

현대오일뱅크, 아람코에서 하루 15만 배럴 원유 도입

현대오일뱅크는 사우디 아람코에서 하루 15만배럴 원유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또 아람코 트레이딩 싱가포르 측에 약 2.1조원 규모 정유제품을 공급하기로 함. 원유도입은 기존 중동 산유국과 구매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동산 원유비중은 40%로 변화 없음. 정유제품 공급은 공장중설 및 현대케미칼 신설에 따른 물량 해소차원으로 알려짐. (서울경제)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6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6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6월 2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편지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